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년 12월 pp.279~305
한국세무학회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안숙찬**

<요 약>

본 연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 1,318 기업-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체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수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이 다양할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낮았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및 해외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지역을 저 세율 국가와 고 세율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속회사 소재지가 다양하고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았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조세부담, 연결실체, 종속회사 수, 종속회사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sookchan@duksung.ac.kr, 02-901-8275

논문접수일 2011년 8월

1차수정일 2011년 10월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I. 머리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정부 입장에서 조세는 재정의 중요한 원천이 되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한 현금유출과 직접적인 이익감소를 초래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 (지방소득세 포함)로서 법인세 부담액은 기업의 단일 지출항목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독립된 단일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전략이나 사업다각화 등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새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와 집단을 구성하여 기업 활동을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영자는 조세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고, 기업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개별기업보다는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의사결정을 할 것이다(이동현 2010). 즉, 다른 회사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투자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집단 내부의 다양한 경영활동과 재무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기회가 많을 수 있다.

Jung et al.(2007)과 박종국·김 혁(2007)은 우리나라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고 있음을 보였다. 재벌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은 독립된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많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며, 계열사 간 재무적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소득이전을 통하여 독립된 기업들에 비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현(2009)은 동일 과세관할권에 있는 기업 간에 실질적인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 지배회사는 지배·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으로 기업집단의 조세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한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는 다양한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들은 저 세율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고 세율 국가에서 저 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국가 간의 다양한 세법규정의 차이를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현지국(host country)의 조세지원 협정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자산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Wilson(1995)과 Mills et al.(1998), Rego(2003)는 여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구조화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조세전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조세전략의 수립이나 조세전문가의 활용 등 단일 기업이 이용하는 조세절감 수단 이외에 소속기업들 간의 매출 및 매입을 비롯한 다양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

업집단의 조세부담이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소속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등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결재무제표 공시 기업으로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결속력이 강한 지배·종속회사로 구성되는 연결실체의 해외 및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대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연결실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의 실증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이전은 세율이나 조세체계 등이 차이가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고 세율 국가에서 저 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한다는 정책당국자들의 우려와 단편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소득이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저 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이지는 못했다.

Harris et al.(1993)은 조세부담이 해외 종속회사의 위치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조세 동기에 따라 소득이전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유연성이 높은 기업들(이자비용, 연구개발비, 임차료, 광고 선전비가 높은 기업들)이 소득이전유인에 더 강하게 반응하여 1986년 조세개혁(TRA86) 이후 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Jacob(1996)은 Harris(1993)를 확장하여 소득이전과 국제적 내부거래 규모를 관련시켰다. 동 연구에서는 TRA86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전 세계적인 조세를 낮게 부담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조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이전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Collins et al.(1998)은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동기에 따라 국제적인 소득이전을 하는지 여부와 투자자들이 이전된 소득에 대하여 이들 소득의 진실 된 원천 또는 보고된 원천에 따라 차별화하여 자본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세율보다 높은 평균 해외 세율에 직면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반면 미국 세율보다 낮은 평균 해외 세율을 직면한 기업들

은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이전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자들은 보고이익의 해외소득 부분과 국내소득 부분을 평가할 때 기업의 소득이전행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권(2000)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이전가격을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 세율 국가에 자회사가 있는 모기업은 이전가격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저 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은 해외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거래보다는 매입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 세율 국가에 자회사가 있는 모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소득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조법 시행 이전에는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다가 국조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이전이 감소되어 국내기업의 조세부담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않았다. 이영한(2006)은 국조법이 시행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를 대상으로 국제이전가격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행태를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의 매출총이익률에서 통제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한 매출총이익률 괴리도를 내부거래 규모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이전가격 조정을 이용한 소득이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는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금융기관 투자자 보다는 연관사업 투자자가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Rego(2003)는 세무계획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국적 기업들이 순수 국내기업들에 비하여 조세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광범위한 해외영업(international operations)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 세계적인 유효법인세율 및 해외 유효법인세율이 그렇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의 유효법인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영업이 기업의 소득이전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보였다. Desai et al.(2005)은 미국 경제 분석실(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해외직접투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지역(tax haven)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특성 및 이러한 영업활동의 목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모가 크고 국제거래의 비중이 큰 기업들이 조세피난지역에 관계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며, 높은 R&D 집중도와 내부거래의 규모가 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조세피난지역의 경영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이전은 주로 국가 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결납세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과세관할권에 소재하는 기업집단 내에서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이 이전될 수 있다. Gramlich et al.(2004)은 일본 재벌기업(keiretsu)에 대한 연구에서 유효세율이 높을수록 세전소득비율이 낮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재벌기업이 동일한 과세관할권 내에서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이전한다는 것을 보였다. 소득이전 현상은 지분율이 높아 결속력이 강한 기업집단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침체기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Jung et al.(2007)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소득이전 현상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한계세율에서 재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낮은 세전수익률과 과세소득률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으로 소득을 이전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종국·김혁(2007)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1인 소유경영자의 지배체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유경영자는 그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그들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집단 전체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담이 높은 계열사에서 낮은 계열사로 소득을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에 따른 계열기업 간의 소득이전 현상은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동현(2009)은 결손발생 혹은 조세혜택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 간에 실질적인 세율 차이가 발생하면 동일한 과세관할권내에 있는 국내기업 간에도 다국적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상장지배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내부거래보다는 국내 내부거래에서 이전가격 등의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내부매입거래보다는 내부 매출거래를 통하여 소득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배회사는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더라도 매출·매입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거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집단인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들이 연결실체의 전 세계적인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재벌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지배회사의 조세지위 여부에 따라 소득이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의 다양성, 내부거래 규모 등 종속회사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연결실체의 전 세계적인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간의 소득이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법인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이루어진 연결실체는 기업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내부거래를 통해 효과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매입거래, 용역계약에 의한 수수료 수수,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이자의 수수 등 다양한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하여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은 독립 기업에 비하여 조세를 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Jung et al.(2007)과 박종국·김 혁(2007), 이동현(2009)은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또는 재벌) 또는 연결실체 내에서 소득이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으로 종속회사의 수, 종속회사의 소재지,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규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특성이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회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은 다양한 경영활동과 많은 재무거래에 관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내부거래 창출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종속회사의 수가 많고 이들 종속회사들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 평준화를 통한 세무계획의 기회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Lee and Swenson(2011)에 따르면 종속회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내부거래의 거래비용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종속회사가 해외에 소재하거나 더 나아가 종속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이 다양할수록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능력과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은 낮을 것이다. 종속회사가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각기 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가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전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자금대차, 로열티 지급, 이익송금 등 다양한 국제 내부거래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미국 재무성 1999). 또한 종속회사가 저 세율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당초 부담하는 조세가 낮기 때문에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조세부담도 낮을 것이다. 그러나 Lee and Swenson(2011)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수출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Jacob 1996). 독립된 단일 기업들도 효과적인 조세전략의 수립과 조세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조세절감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업집단은 이러한 조세절감 수단 이외에도 추가로 내부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부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 비하여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세전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기업집단이 국내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유인과 기회가 있지만 조세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종속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지는 실증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이전가격 등도 조세당국의 주요 감시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회사의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종속회사의 수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2] 종속회사의 소재지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3]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규모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속회사의 수와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등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부담은 종속회사의 특성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부채비율, 규모, 영업현금흐름을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연도효과를 고려하였다.

식(1)은 종속회사의 수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종속회사의 수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전체 종속회사의 수,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와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는 다시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 저 세율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회사 관련 특성에 대한 자료는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종속회사 관련 주석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NUM_t + \beta_2 PTI_t + \beta_3 LEV_t + \beta_4 SIZE_t + \beta_5 OCF_t + \sum_{j=1}^2 \beta_j YEAR_j + \epsilon_t \quad (1)$$

단,

$$TAX BURDEN_t (\text{조세부담}) = \frac{\text{법인세부담액}_t}{\text{총자산}_{t-1}} = \frac{\text{법인세비용}_t \pm \text{이연법인세자산 증감액}_t \mp \text{이연법인세부채 증감액}_t}{\text{총자산}_{t-1}}$$

$$NUM_t (\text{종속회사의 수})$$

$$PTI_t (\text{수익성})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자연로그값}$$

$$LEV_t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_t}{\text{총자산}_t}$$

$$SIZE_t (\text{규모}) = \text{총자산의 자연로그값}$$

$$OCF_t (\text{영업현금흐름}) = \frac{\text{영업현금흐름}_t}{\text{총자산}_{t-1}}$$

$$YEAR (\text{연도터미}) = 2005\text{년} - 2007\text{년}, 2008\text{년}, 2009\text{년으로 구분하여 부여}$$

식 (2-1)과 식 (2-2)는 종속회사의 소재지 및 소재지의 다양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식 (2-1)에서는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연결실체와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연결실체, 국내와 해외에 모두 종속회사를 보유한 연결실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식 (2-2)에서는 소재지의 다양성을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종속회사의 소재지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였으며, 해외는 다시 중국과 북미, 서유럽 등 14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FOREIGN_t + \beta_2 FOREDOM_t + \beta_3 PTI_t + \beta_4 LEV_t + \beta_5 SIZE_t + \beta_6 OCF_t + \sum_{j=1}^2 \beta YEAR_j + \epsilon_t \quad (2-1)$$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DIVERSITY_t + \beta_2 PTI_t + \beta_3 LEV_t + \beta_4 SIZE_t + \beta_5 OCF_t + \sum_{j=1}^2 \beta YEAR_j + \epsilon_t \quad (2-2)$$

단,

FOREIGN= 더미변수,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1', 아니면 '0'

FOREDOM= 더미변수,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와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1', 아니면 '0'

DIVERSITY=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한국포함)

식 (3)은 내부거래 규모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내부거래 규모는 매출과 매입, 매출과 매입거래를 제외한 기타 수익과 비용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집계하였으며, 매출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이동현 2010). 총 내부거래 규모는 국내 내부거래 규모와 해외 내부거래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내부거래는 다시 매출 및 매입거래와 기타 수익 및 비용거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VOL_t + \beta_2 PTI_t + \beta_3 LEV_t + \beta_4 SIZE_t + \beta_5 OCF_t + \sum_{j=1}^2 \beta YEAR_j + \epsilon_t \quad (3)$$

단, $VOL(\text{내부거래 규모}) = \frac{\text{내부거래(매출+매입+기타수익+기타비용)}}{\text{매출액}}$

식 (4-1)과 식 (4-2)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식 (4-1)에서는 종속회사의 수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식 (4-2)에서는 소재지의 다양성과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¹⁾

1) 종속회사의 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를 모두 한 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부분적인 상호작용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NUM_t + \beta_2 VOL_t + \beta_3 NUM_t * VOL_t + \beta_4 PTI_t + \beta_5 LEV_t + \beta_6 SIZE_t + \beta_7 OCF_t + \sum_{j=1}^2 \beta_j YEAR_j + \epsilon_t \quad (4-1)$$

$$TAX BURDEN_t = \beta_0 + \beta_1 DIVERSITY_t + \beta_2 VOL_t + \beta_3 DIVERSITY_t * VOL_t + \beta_4 PTI_t + \beta_5 LEV_t + \beta_6 SIZE_t + \beta_7 OCF_t + \sum_{j=1}^2 \beta_j YEAR_j + \epsilon_t \quad (4-2)$$

종속변수인 조세부담(*TAX BURDEN*)은 연결실체의 전 세계적 법인세부담액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고종권 2000). 법인세부담액은 기업의 다양한 거래와 활동, 조세전략의 실행 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현금지출이 수반된다. 따라서 법인세부담액은 연결실체의 전 세계적인 진실한 조세부담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부담액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감소액)을 가산(차감)하고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감소액)을 차감(가산)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조세부담 또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고려하고 있다(이동현 2010 ; 김진회 · 정재욱 2006).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현행 법인세법 체계 하에서 더 높은 법정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PTI*)은 Rego (2003)에서와 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부채의 사용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현행 세법상 손금산입항목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 부채비율(*LEV*)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조세 선호 자산(*tax favored assets*)에 투자할 능력이나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세를 용이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rown(2008)은 자본시장에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은 공격적 조세부담 최소화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기업의 평판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SIZE*)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그 방향을 예측하지 않았으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영업현금흐름(*OCF*)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법인세부담액은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유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은 조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할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업현금흐름이 큰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클 수 있다. 따라서 영업현금흐름과 기업의 조세부담은 양(+)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더미 변수는 조세환경의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법인세 법정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2005년~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²⁾

2. 표본기업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①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
- ② 은행, 증권, 보험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
- ③ 결산기가 변경되지 않은 기업
- ④ 재무제표 자료 및 종속회사 관련 주식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업

본 연구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구성된 경제적 실체인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으로 표본기업을 한정하였다. 또한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본기업을 금융업(은행·증권·보험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금융업은 영업환경이나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이 제조업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도 심하여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는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으로 한정된 것은 결산 월이 다른 경우 세법 변경의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측정치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세부담 최소화가 의미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부담액이 '0'보다 작은 관찰치들은 표본에서 제거하였으며,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하여 1% 또는 99%를 벗어나는 관찰치들은 표본에서 제거하였다.³⁾ 위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은 1,318기업-연이었으며, 이들 기업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자료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종속회사 관련 주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본기업에 대한 기술통계가 제시된 <표 1>을 보면, 조세부담(*TAX BURDEN*)의 평균은

-
- 2) 2005년~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와 각 연도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3)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하여 1% 또는 99%를 벗어나는 관찰치들에 대하여 winsor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극단치를 제거한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1.81%이고 중간값은 1.43%로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right skewed)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본 기업의 부채비율(*LEV*)은 51.97%이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자연로그값(*PTI*)의 평균은 21.26, 기초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OCF*)의 평균은 6.45%로서 표본기업의 재무구조나 수익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표본기업의 내부거래 규모(*VOL*)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58%이고, 중간값은 6.02%이다. 전체 내부거래 중에서 해외 내부거래 규모(*VOL_FOREIGN*)의 평균은 6.98%로서 국내 내부거래(*VOL_KOR*) 평균 4.6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값은 국내 내부거래가 1.03%로서 해외 내부거래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표 1〉 기술통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i>TAX BURDEN</i>	0.0181	0.0158	0	0.0143	0.0782
<i>PTI</i>	21.2601	8.1618	0	23.8263	28.9083
<i>LEV</i>	0.5197	0.1799	0.1170	0.5335	0.9287
<i>SIZE</i>	27.2047	1.4872	24.4487	26.9766	31.8730
<i>OCF</i>	0.0645	0.0851	-0.2271	0.0587	0.4002
<i>VOL</i>	0.1158	0.1567	4.37E-17	0.0602	1.0981
<i>VOL_KOR</i>	0.0460	0.0819	0	0.0103	0.6569
<i>VOL_FOREIGN</i>	0.0698	0.1400	0	0.0080	1.0981

1) 변수설명

$$TAX_BURDEN_t(\text{조세부담}) = \frac{\text{연결실체의 법인세부담액}_t}{\text{총자산}_{t-1}} \\ = \frac{\text{법인세비용}_t \pm \text{이연법인세자산 증감액}_t \mp \text{이연법인세부채 증감액}_t}{\text{총자산}_{t-1}}$$

$$PTI_t(\text{수익성})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의 자연로그값}$$

$$LEV_t(\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_t}{\text{총자산}_t}$$

$$SIZE_t(\text{규모}) = \text{총자산의 자연로그값}$$

$$OCF_t(\text{영업현금흐름}) = \frac{\text{영업현금흐름}_t}{\text{총자산}_{t-1}}$$

$$VOL_t(\text{내부거래 규모}) = \frac{\text{내부거래}(\text{매출}_t + \text{매입}_t + \text{기타수익}_t + \text{기타비용}_t)}{\text{매출액}}$$

$$VOL_KOR_t(\text{국내 내부거래 규모}) = \frac{\text{국내 내부거래}(\text{매출}_t + \text{매입}_t + \text{기타수익}_t + \text{기타비용}_t)}{\text{매출액}}$$

$$VOL_FOREIGN_t(\text{해외 내부거래 규모}) = \frac{\text{해외 내부거래}(\text{매출}_t + \text{매입}_t + \text{기타수익}_t + \text{기타비용}_t)}{\text{매출액}}$$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표 2〉 상관관계

변 수	TAX BURDEN	PTI	LEV	SIZE	OCF	NUM	NUM_ KOR	NUM_ FOREIGN	DIVERSITY	VOL	VOL_ KOR	VOL_ FOREIGN
TAX BURDEN	1.0000											
PTI	0.3521 ^{***}	1.0000										
LEV	-0.2429 ^{***}	-0.1411 ^{***}	1.0000									
SIZE	0.1115 ^{***}	0.2697 ^{***}	0.2543 ^{***}	1.0000								
OCF	0.3338 ^{***}	0.3250 ^{***}	-0.2256 ^{***}	0.1218 ^{***}	1.0000							
NUM	0.0020	0.1053 ^{***}	0.2513 ^{***}	0.6378 ^{***}	0.0304	1.0000						
NUM_ KOR	0.0067	0.1244 ^{***}	0.1804 ^{***}	0.5212 ^{***}	0.0170	0.7034 ^{***}	1.0000					
NUM_ FOREIGN	-0.0017	0.0587 [*]	0.2185 ^{***}	0.5120 ^{***}	0.0297	0.8790 ^{***}	0.2795 ^{***}	1.0000				
DIVERSITY	0.0118	0.1006 ^{***}	0.2306 ^{***}	0.5609 ^{***}	0.0626 ^{**}	0.7889 ^{***}	0.3068 ^{***}	0.8583 ^{***}	1.0000			
VOL	-0.1026 ^{***}	-0.0454	0.0263	0.0677 ^{**}	0.0163	0.1843 ^{***}	0.0221	0.2342 ^{***}	0.2754 ^{***}	1.0000		
VOL_ KOR	0.0029	0.0344	-0.0213	0.0356	-0.0086	0.1189 ^{***}	0.2694 ^{***}	-0.0200	0.0105	0.4547 ^{***}	1.0000	
VOL_ FOREIGN	-0.1166 ^{***}	-0.0709 ^{**}	0.0419	0.0550 [*]	0.0233	0.1368 ^{***}	-0.1328 ^{***}	0.2739 ^{***}	0.3022 ^{***}	0.8535 ^{***}	-0.0758 ^{**}	1.0000

1) NUM_i = 종속회사 수

NUM_{KOR}_i =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NUM_{FOREIGN}_i$ =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DIVERSITY_i$ =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한국포함)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 참조.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3) ***, **, * :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2>를 보면, 종속회사 관련 특성 변수 중에서 내부거래 규모(*VOL*)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TAX BURDEN*)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회사의 수(*NUM*)나 소재지의 다양성(*DIVERSITY*)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종속회사의 수와 소재지의 다양성, 내부거래 규모는 각각 다른 종속회사 관련 특성 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종속회사의 수와 소재지의 다양성은 0.7889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은 모든 통제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회사의 수는 영업현금흐름(*OCF*)을 제외한 수익성(*OCF*), 부채비율(*LEV*), 규모(*SIZE*)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내부거래 규모는 규모 변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제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 규모(*SIZE*)는 종속회사의 수와 소재지의 다양성, 내부거래 규모 등 종속회사 관련 특성 변수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통제변수들과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규모변수와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의 다양성은 각각 0.6378 및 0.5609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주석 6 참조).

<표 3>의 종속회사 관련 기술통계의 패널A를 보면, 표본기업은 국내와 해외에 걸쳐 평균 6.0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⁴⁾ 종속회사의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42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간값은 3개로 상당수 기업들은 소수의 종속회사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별로 보유한 종속회사 수의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종속회사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는 평균 2.81개이고,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는 평균 3.22개로서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 소재한 기업들 중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는 평균 2.69인 반면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는 평균 0.52로서 대부분의 종속회사가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 한편, 패널C를 보면 표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수는 총 7,961개로, 국내에 3,706개의 종속회사가 있는 데 비해 해외에는 이보다 많은 4,25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영업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종속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수(패널A)는 연결실체 당 평균 2.44로, 최소 1개국에서 최대 15개국에 걸쳐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소재지역의 수가 종속회사 수의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외의 경우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졌다.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수의 중간값은 한국을 포함할 경우 2개로서 상당수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 1곳 정도에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패널B의 종속회사 소재지별 표본기업의 수를 보면, 전체 표본기업 1,318 기업-연 중에서 국

4) 이동현(2010)에서는 종속회사의 수가 평균 4.761개사이고 중간값은 3개사로 본 연구보다 평균 종속회사 수가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인 투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동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인 2003년-2004년이 연구대상기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와 해외에 모두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결실체는 626개이며,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실체는 422개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실체는 270개인데, 이는 1~2개의 종속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종속회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패널C의 연도별·소재지별 종속회사 수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종속회사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국내로 739개 종속회사가 있다. 해외지역 중에는 중국에 338개의 종속회사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북미 지역으로 중국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절반 정도인 155개 종속회사가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다. 중국과 북미지역 이외에는 서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순으로 종속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속회사의 수 추이를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종속회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소재한 종속회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 소재한 종속회사는 기간 중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종속회사 소재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저 세율 국가에 진출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 종속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 법인세율이 시행되는 미국이나 서유럽, 중국 등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나라들로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할 때 조세요인 이외에도 현지시장 진출이나 수출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한 비조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꾸준히 인하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도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가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 기술통계 : 종속회사

A. 종속회사의 수 및 종속회사 소재 지역의 수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전체 종속회사 수	6.0402	11.0805	1	3	142
국내소재 종속회사 수	2.8118	4.5526	0	1	63
해외소재 종속회사 수	3.2283	8.4562	0	1	117
고 세율 국가 소재	2.6949	6.6619	0	1	93
저 세율 국가 소재	0.5250	2.0695	0	0	36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 수(한국 포함)	2.4476	2.1158	1	2	15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 수(한국 제외)	1.6525	2.1131	0	1	14

〈표 3〉 기술통계 : 종속회사 (계속)

B. 종속회사 소재지별 표본기업의 수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표본기업 수	1,318	227	291	274	260	266
국내&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를 모두 보유한 기업의 수	626	98	129	136	127	136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기업의 수	422	82	103	83	78	76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기업의 수	270	47	59	55	55	54
C. 연도별 · 소재지별 종속회사의 수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종속회사의 수	7,961	1,368	1,625	1,562	1,704	1,702
국내소재 종속회사의 수	3,706	611	790	757	809	739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수	4,255	757	835	805	895	963
중국	1,446	236	275	276	321	338
북미	727	140	144	139	149	155
서유럽	518	96	113	104	87	118
동남아시아	457	84	94	83	94	102
홍콩 · 싱가포르	280	48	57	43	67	65
일본	148	30	32	32	25	29
동유럽	143	27	23	32	30	31
서남아시아	138	20	24	29	27	38
중남미	91	23	17	12	20	19
오세아니아	84	17	18	14	17	18
중앙아시아(러시아 포함)	76	8	11	15	25	17
아프리카	54	14	13	9	11	7
중동	50	9	6	11	11	13
기타	43	5	8	6	11	13

2. 회귀분석결과

가. 종속회사의 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가 많을수록 다양한 거래와 계약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여지가 클 수 있다. 종속회사의 수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에서는 연결실체의 전체 종속회사 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UM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으로 전체 종속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집계한 종속회사 수를 이용하여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NUM_KOR)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NUM_FOREIGN$)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으로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를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저 세율 국가 또는 고 세율 국가의 구분은 KPMG의 'Corporate and Indirect Tax Rate Survey 2009'에 나타난 해당 국가의 법인세 법정세율과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비교한 다음, 해당 국가의 법인세 법정세율이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 높으면 고 세율 국가로, 반대의 경우에는 저 세율 국가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NUM_LOW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으로 나타난 반면 NUM_KOR 나 NUM_HIGH 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중에서 특히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고 있다.⁵⁾

한편, 수익성(PTI)과 영업현금흐름(OCF)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SIZE$)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Adjusted R^2$)은 0.2209~0.2236이다.⁶⁾

-
- 5)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를 <표 3> 패널C의 구분에 따라 14개 국가 또는 지역별로 집계한 종속회사 수를 이용하여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남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법인세율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인도는 33.99%로 높았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각각 16.5% 및 18%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았다. 한편, 종속회사가 소재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6)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 모형에서 VIF의 값은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종속회사의 수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UM</i>	-0.0001	-2.93***				
<i>NUM_KOR</i>			-0.00003	-0.31	-0.00007	-0.76
<i>NUM_FOREIGN</i>			-0.0001	-3.25***		
<i>NUM_HIGH</i>					0.00006	0.64
<i>NUM_LOW</i>					-0.0007	-2.52**
<i>PTI</i>	0.0004	10.41***	0.0004	10.36***	0.0004	10.34***
<i>LEV</i>	-0.0143	-5.29***	-0.0143	-5.28***	-0.0145	-5.35***
<i>SIZE</i>	0.0008	2.08*	0.0007	1.93*	0.0008	1.98**
<i>CFO</i>	0.0419	6.47***	0.0422	6.51***	0.0421	6.51***
절편	-0.0097	-0.94	-0.0085	-0.82	-0.0088	-0.86
F 값	67.83 (p<0.0001)		57.00 (p<0.0001)		49.05 (p<0.0001)	
Adjusted R ²	0.2209		0.2213		0.2236	
기업-연	1,318 기업-연		1,318 기업-연		1,318 기업-연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1) NUM_t = 종속회사 수

NUM_KOR_t =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NUM_FOREIGN_t$ =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NUM_HIGH_t =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NUM_LOW_t =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 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 참조.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3) ***, **, * :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나. 종속회사의 소재지

국가 간의 세율 격차나 조세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종속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속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에서는 종속회사가 국내에만 있는 경우, 해외에만 있는 경우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모두 있는 경우로 나누어 각 그룹 간에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OREIGN*과 *FOREDOM*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⁷⁾ 모형2와 모형3에서는 종속회사가 소재한

7) 종속회사가 국내에만 있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평균은 0.01856으로 종속회사가 국내와 해외에 모두

국가 또는 지역의 수 즉,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2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를 측정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DIVERSITY_KOR*와 *DIVERSITY_NKOR*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으로서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분석결과를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에 따라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이 다양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해외 종속회사를 통한 다양한 국제거래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Rego 2003).

한편, 수익성(*PTI*)과 영업현금흐름(*OCF*)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SIZE*)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Adjusted R²*)은 0.2182~0.2208이다.

〈표 5〉 종속회사의 소재지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FOREIGN</i>	-0.0012	-0.92				
<i>FOREDOM</i>	-0.0001	-0.14				
<i>DIVERSITY</i>			-0.0005	-2.03**		
<i>DIVERSITY_NKOR</i>					-0.0005	-2.19**
<i>PTI</i>	0.0004	10.22***	0.0004	10.39***	0.0004	10.39***
<i>LEV</i>	-0.0147	-5.43***	-0.0141	-5.17***	-0.0141	-5.18***
<i>SIZE</i>	0.0003	0.92	0.0008	2.07**	0.0008	2.13**
<i>OCF</i>	0.0419	6.47***	0.0422	6.53***	0.0424	6.57***
절편	0.0035	0.38	-0.0091	-0.90	-0.0093	-0.95
F 값	57.46 (P<0.0001)		67.53 (p<0.0001)		67.82 (p<0.0001)	
<i>Adjusted R²</i>	0.2182		0.2202		0.2208	
기업-연	1,318 기업-연		1,318 기업-연		1,318 기업-연	

있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평균 0.018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종속회사가 해외에만 있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0.01685(0.0123)로 가장 낮았다.

- 1) $FOREIGN_t$ = 더미변수,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1', 아니면 '0'
 $FOREDOM_t$ = 더미변수, 국내에 소재한 종속회사와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1',
 아니면 '0'
 $DIVERSITY_t$ =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한국포함)
 $DIVERSITY_NKOR_t$ =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한국제외)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 참조.
-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 3) ***, **, * :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다. 내부거래 규모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규모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에서는 매출과 매입, 매출과 매입 이외의 기타 수익과 비용을 모두 포함한 연결실체의 전체 내부거래를 합산한 금액을 내부거래 규모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VOL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으로서 전체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전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기회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2에서는 전체 내부거래를 국내 내부거래와 해외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내부거래 규모를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내부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VOL_KOR 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VOL_FOREIGN$ (해외 내부거래 규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국내 내부거래 규모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해외 내부거래는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회사의 수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표 4>에서 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수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해외 소재 종속회사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모형3에서는 전체 내부거래를 국내와 해외, 매출 및 매입거래와 기타 수익 및 비용거래로 구분하여 내부거래를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2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VOL_FOREIGN_SB$ (해외 매출 및 매입 내부거래 규모)와 $VOL_FOREIGN_RE$ (해외 기타 수익 및 비용 내부거래 규모)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VOL_KOR_SB (국내 매출 및 매입 내부거래 규모)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VOL_KOR_RE (국내 기타 수익 및 비용 내부거래 규모)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였다.⁸⁾ 모형2와 모형3의 분석결과는 해당 내부거래

8) 전체 내부거래를 매출 및 매입거래와 기타 수익 및 비용거래로 구분하여 집계한 내부거래 규모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매출 및 매입 내부거래 규모와 기타 수익 및 비용 내부거래 규모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가 국내거래인지 아니면 해외거래인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다를 뿐 아니라 내부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도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4에서는 해외 내부거래가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거래인지 또는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거래인지로 구분하여 내부거래 규모를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VOL_LOW_SB*와 *VOL_LOW_RE*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으로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매출 및 매입거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기타 수익 및 비용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래의 형태는 매출 및 매입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익 및 비용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VOL_HIGH_SB*와 *VOL_HIGH_RE*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 거래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것은 연결실체가 이들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저 세율 국가로 기업 활동을 집중시키거나 고 세율 국가에서 저 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 세율 국가로 분류된 곳이 주로 북미나 서유럽 등의 선진국과 중국으로서 첨단기술 획득이나 시장접근성 제고, 값싼 노동력의 이용 등 조세 이외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들 지역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한편, 수익성(*PTI*)과 영업현금흐름(*OCF*)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SIZE*)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Adjusted R²*)은 0.2142~0.2241이다.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고종권(2000)에서도 고 세율 국가에 자회사가 있는 모기업은 해외로부터 국내로 소득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조법 시행 이전에는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다가 국조법 시행 이후에는 소득이전이 감소되어 국내기업의 조세부담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않는 등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조세이외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내부거래 규모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VOL</i>	-0.0095	-2.76***						
<i>VOL_KOR</i>			-0.0033	-0.68				
<i>VOL_FOREIGN</i>			-0.0115	-2.67***				
<i>VOL_KOR_SB</i>					-0.0008	-0.17	-0.0008	-0.16
<i>VOL_KOR_RE</i>					-0.0456	-2.83***	-0.0483	-3.20***
<i>VOL_FOREIGN_SB</i>					-0.0113	-2.52**		
<i>VOL_FOREIGN_RE</i>					-0.0222	-3.08***		
<i>VOL_HIGH_SB</i>							-0.0074	-1.36
<i>VOL_HIGH_RE</i>							0.0005	0.03
<i>VOL_LOW_SB</i>							-0.0236	-4.52***
<i>VOL_LOW_RE</i>							-0.0474	-5.44***
<i>PTI</i>	0.0004	8.85***	0.0004	8.66***	0.0004	8.72***	0.0004	8.76***
<i>LEV</i>	-0.0157	-5.20***	-0.0156	-5.18***	-0.0155	-5.19***	-0.0155	-5.19***
<i>SIZE</i>	0.0008	2.18**	0.0008	2.19**	0.0009	2.40**	0.0009	2.54**
<i>CFO</i>	0.0387	5.55***	0.0391	5.62***	0.0390	5.61***	0.0392	5.64***
절편	-0.0095	-0.79	-0.0078	-0.81	-0.0097	-1.01	-0.0112	-1.17
F 값	50.48 (p<0.0001)		42.71 (p<0.0001)		32.78 (p<0.0001)		27.81 (p<0.0001)	
Adjusted R ²	0.2142		0.2157		0.2204		0.2241	
기업-연	1,097 기업-연		1,097 기업-연		1,111 기업-연		1,097 기업-연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1) VOL_t (\text{내부거래 규모}) = \frac{\text{내부거래}(\text{매출} + \text{매입} + \text{기타수익} + \text{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KOR_t (\text{국내 내부거래 규모}) = \frac{\text{국내 내부거래}(\text{매출} + \text{매입} + \text{기타수익} + \text{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FOREIGN_t (\text{해외 내부거래 규모}) = \frac{\text{해외 내부거래}(\text{매출} + \text{매입} + \text{기타수익} + \text{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KOR_SB_t = \frac{\text{국내 내부거래}(\text{매출} + \text{매입})}{\text{매출액}}$$

$$VOL_KOR_RE_t = \frac{\text{국내 내부거래}(\text{기타수익} + \text{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FOREIGN_SB_t = \frac{\text{해외 내부거래}(\text{매출} + \text{매입})}{\text{매출액}}$$

$$VOL_FOREIGN_RE_t = \frac{\text{해외 내부거래}(\text{기타수익} + \text{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HIGH_SB_t = \frac{\text{고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매출 + 매입)}}{\text{매출액}}$$

$$VOL_HIGH_RE_t = \frac{\text{고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기타수익 + 기타비용)}}{\text{매출액}}$$

$$VOL_LOW_SB_t = \frac{\text{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매출 + 매입)}}{\text{매출액}}$$

$$VOL_LOW_RE_t = \frac{\text{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기타수익 + 기타비용)}}{\text{매출액}}$$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 참조.

-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3) ***, **, * :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라. 상호작용효과의 분석

<표 4>~<표 6>에서는 종속회사의 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가 각각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종속회사 관련 특성은 개별적으로도 기업의 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요인과 복합되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7>의 모형1에서는 종속회사의 수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과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1에서 $NUM * VOL$ 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속회사의 수 또는 내부거래 규모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독립변수와 복합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와 <표 6>의 분석결과를 보면 종속회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또는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각각의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종속회사 관련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DIVERSITY * VOL$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으로서, VOL (내부거래 규모)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DIVERSITY$ (소재지의 다양성)이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VOL 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종속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다양성이 높고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아지고 있다. 종속회사의 소재지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이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전략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국제간의 다양한 세율과 조세제도를 이용한 조세부담 최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

내부거래 규모와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의 다양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표 7>의 결과는 내부거래 규모가 종속회사의 수와는 독립적으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속회사 소재지의 다양성과는 복합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종속회사 7,961개사 중에서 국내소재 종속회사의 수가 3,706개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내부거래 규모(VOL_KOR)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상호작용효과 분석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NUM	-0.00002	-0.22		
$DIVERSITY$			0.0005	1.53
VOL	-0.0078	-1.57	0.0012	0.19
$NUM * VOL$	-0.0002	-0.51		
$DIVERSITY * VOL$			-0.0034	-2.64***
PTI	0.0004	8.72***	0.0004	8.54***
LEV	-0.0156	-5.15***	-0.0160	-5.30***
$SIZE$	0.0010	1.97**	0.0009	1.99**
CFO	0.0387	5.56***	0.0397	5.69***
절편	-0.0125	-0.94	-0.0109	-0.92
F 값	36.50 (p<0.0001)		36.76 (p<0.0001)	
Adjusted R^2	0.2148		0.2197	
기업-연	1,097 기업-연		1,097 기업-연	
연도더미	포함		포함	

1) NUM_t = 종속회사의 수

$DIVERSITY_t$ =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한국포함)

VOL_t (내부거래 규모) = $\frac{\text{내부거래(매출+매입+기타수익+기타비용)}}{\text{매출액}}$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 참조.

2) 표본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상하 1%에서 truncation 한 후의 결과임.

3) ***, **, * :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V. 결 론

기업들은 성장전략이나 사업다각화 등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와 집단을 구성하여 기업 활동을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효과적인 조세전략의 수립이나 조세전문가의 활용 등 단일 기업이 이용하는 조세절감 수단 이외에 계열기업 간의 매출 및 매입을 비롯한 다양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 내부거래 규모 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 1,318 기업-연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결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체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수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종속회사 소재지는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종속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이 다양할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유의하게 낮았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및 해외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국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지역을 저 세율 국가와 고 세율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세율 국가에 소재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및 소재지와 내부거래 규모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속회사 소재지가 다양하고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은 낮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종속회사의 수나 소재지의 다양성, 내부거래 규모가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나 해외 내부거래 규모가 클수록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당국이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영업활동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노동력을 비롯한 자원 확보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해외 영업활동의 확대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세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 관련 특성이 연결실체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연결납세제도와 관련된 조세정책 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회계 상으로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법인에 대하여 K-IFRS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었으나 세법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 2010년부터 완전지배관계(지분을 100%)인 자법인에 한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10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자법인에 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별납세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연결회계와 연결납세제도는 그 대상과 적용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겠지만 연결납세와 관련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연결실체의 조세관련 행위를 분석한 결과는 연결납세제도에서의 기업의 조세관련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종속회사 소재지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2011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 연구대상기간이 확장되고,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포괄적인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종권. 2000.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회계학연구 제25권 제2호 : 51 - 77.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 - 123.
- 박종국 · 김 혁. 2007.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경영연구 제22권 제1호 : 175 - 201.
- 이동현. 2010. “조세부담이 연결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5권 제3호 : 147 - 182.
- 이영한. 2006.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해외관계사의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own, J. 2008. The spread of aggressive corporate tax reporting :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corporate - owned life insurance shelter.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ollins, J., D. Kemsley, and M. Lang. 1998. Cross - jurisdictional income shifting and earnings valu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 pp.209 - 229.
- Desai, M. A., C. F. Foley, and J. R. Hines Jr. 2006. The demand for tax haven opera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 513 - 531.
- Gramlich, J. D., P. Limpaphayom, and S. Ghon Rhee. 2004. Taxes, Keiretsu affiliation, and income shif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7(2) : 203 - 228.
- Harris, D. G. 1993. The impact of U.S. tax law revis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pital locations and income - shif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supplement) : 111 - 140.
- Jacob, J. 1996. Taxes and transfer pricing : Income shifting and the volume of intrafirm transf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 301 - 312.
- Jung, Kooyul, Boyoung Kim, and Byungmo Kim. 2007. Tax motivated income shifting and Korean business groups(Chaebol). Working paper. KAIST Business School.
- KPMG. 2009. *KPMG's Corporate and Indirect Tax Rate Survey 2009*.
- Lee, N., and C. Swenson. 2011. World - wide corporate taxes : How much do rates really matter?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Mills, L., M. Erickson, and E. Maydew. 1998. Investments in tax plann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 1 - 20.
- Rego, S. 2003. Tax - avoidance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 : 805 - 833.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999.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 Discussion,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s*. July. Washing,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ilson, G. P. 1995. Corporate tax effectiveness : Adding value through the tax function. Working paper, Harvard University.

Corporate Tax Burden and Business Groups

An, Sook Cha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haracteristics of subsidiaries such as the number, location, and intra-transaction volume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I use consolidated financial data of 1,318 firms-years collected from Korean stock market between 2005–2009.

In this study, I find that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y goes down significantly as the number of total subsidiaries, foreign subsidiaries, and subsidiaries in the low-tax countries increases. But the number of domestic subsidiaries or the number of subsidiaries in the high-tax countries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s' tax burden. In addition, firms' tax burden decreases as the location of subsidiaries are diversified.

As total intra-transaction volume among consolidated entity and the foreign intra-transaction volume increase, the tax burden alleviates significantly. However, the domestic intra-transaction volume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Also, the volume of intra-transaction with subsidiaries in the low-tax countries lightens firms' tax burden significantly, but the volume of intra-transaction with subsidiaries in the high-tax countries does not lower it. In the analysis of interaction of the number, the diversity of location, and the intra-transaction volume,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iversity of location and the intra-transaction volum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investigates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subsidiaries on the tax burden of consolidated entities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activities of consolidated entities through international operations.

〈Key words〉 tax burden, consolidated entity, subsidiary, the number of subsidiaries, the location of subsidiaries, an intra-transaction volume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sookchan@duksung.ac.kr